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일본 것들이 북돋아 터진 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 하나가 대중가요다. 일본은 서양의 '팍스 트로트(fox trot)'를 받아들여 '도롯도'로 변용하였는데 우리나라에 그 '도롯도'가 여과 없이 흘러들어와 한 시대를 휩쓸었다.

이 음악은 전통적인 우리 노래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 것이 3박자 넷을 한 절로 삼는 삼분박 음악인데 비해, 일본의 '도롯도'는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에,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를 한 단위 한 절로 삼는 이른바 칠오조 가사를 썼다. 말도 다르고, 박자도 울도 달랐지만 이 새로운 형식의 대중가요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창작 대중가요의 틀로 굳어졌다.

4박자 노래는 서양 선곡자들이 보급한 찬송가를 통해서도 이미 귀에 익은 것이었다. 3박자 노래만 알다가 4박자 노래까지 알게 된 것은 음악의 근대화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칠오조의 음수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본이 팍스 트로트를 일본의 전통적인 가사 울에 담은 데 반해 우리는 일본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

이다. 1929년에 시에론 레코드에서 발매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 '낙화유수'의 울이 바로 칠오조다. '강남달이 밝아서 일이 노던 곳'이라는 가사에서 보듯

일본 음악과 '고향의 봄'

이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가 한 행을 이루고 있다. 이 노래는 1927년에 당대의 번사였던 김영환이 곡본을 쓰고 이규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낙화유수'의 주제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영화 해설 곡이다. '낙화유수'는 무성영화여서 주제가가 있을 수 없다. 영화가 나온 뒤에 김서영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여 이규영의 동생 이정숙에게 부르게 한 노래가 대우행을 했다. 번사이자 극작가인 김영환과 작사, 작곡가인 김서영은 사실은 동일인인듯, 한 마디로 김서영이 북도 치고 장구도 친는 일본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

부른, "이 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물에"를 첫 절로 한, 동명의 '낙화유수' 역시 가사가 칠오조다. 당시 유행 곡은 하나같이 칠오조였다. 대중가요만 칠오조로 부른 것이 아니다. 동요 역시 마찬가지다. 1920년대에 학생들이 우리 동요를 부르며 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그 뒤 동요가 잇달아 나왔는데 대부분이 칠오조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최초의 창작동요로 알려진 '반달'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로 시작한다. 어귀없는 칠오조다.

광복 후에 학교에 다닌 내가 배운 동요도 칠오조 일색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배운 "학교 종이 뽕뽕 뽕 아서 모아자"도 그렇고, 졸업식 날 부른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도 그렇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도 칠오조고, "내 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도,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도, "달 밝은 가을 밤에 거러기들이"도, "엄마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도 다 칠오조다. 민족주의자이자 한글학자인 최현배 선생이 지은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로 시작하는 한글날 노래마저, 강소천이 작사한 "삼월 하늘 가만히 우리

러 보며" 하는 유관순 노래마저 칠오조다.

오랜만에 곧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모양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면 마치 주제가 부르듯 하는 '고향의 봄'도 칠오조 노래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각 행을 이루고 있다. 작사가 이원수는 칠오조를 맞추기 위해 '아기 진달래'를 끌어들이느라 애가나 태웠을 법하다.

남과 북이 모여 일체감을 공유하는 노래가 왜 일본의 전형적인 울로 만든 노래여야 하는지 안타깝지만, 이원수보다 더 애를 태워봤자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칠오조 아닌 다른 곡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노래로 우리 고유의 박자인 삼분박에, 그것도 칠음계가 아닌 오음계를 쓰고, 나아가 '삼삼삼사 삼삼삼사 삼오삼삼'의 시조 울로 가사를 쓴, 그런 곡을 새로 하나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나 이런 욕심은 이 정권 하에서는 조용히 접어야 한다. 그저 '고향의 봄'이라는 칠오조 노래만이라도 남과 북이 자주 부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고려대 명예교수·다산연구소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성장동력' 가능성 보여준 F1 지금부터다

영암 서킷에서 열린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큰 차질없이 끝났다. 경험도 없고 기반시설도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전남이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로 불리는 F1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치러낼 수 있었느냐는 우려를 씻고 데뷔전을 성황리에 마친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미약한 지원, 촉박한 시간 등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대회를 무사히 치른 것은 전남의 지역력을 보여준 쾌거라 할 수 있다. 전남도와 대회조직위, KAVO 등 관계자에게 격려를 보낸다.

이번 영암 F1은 지역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16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국내외의 이목을 전남으로 끌리게 했다. 무엇보다 전남 서부권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F1이 2012 여수박람회와 함께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하지만, F1이 진정한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숙박,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엉망이었다. 특히 일부 모텔은 외국인들이 숙박할 정도로 이미지를 구겼다. 하드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소프트 면에서는 낙제점이었던 것이다. 영암 F1이 '질반의 성공'이라는 평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평이 나온 F1을 숙박·항공·관광·소방업계와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기획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남의 관광과 문화·역사, 그리고 여수엑스포를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다. 전남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첫 대회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F1이 명실상부한 전남의 성장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한 'SSM법안' 다시 원점이라니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를 열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SM 확산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유통법 개정을 광주시의 SSM 규제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 북구에서는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빚고 있다. 법원이 대형마트 신축에 허가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건축주의 손을 들 어준 데 반해 복구청은 영세상인과 인근 학교의 반발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다.

광주시 역시 대형마트와 SSM을 주거 지역에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는 상위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 서 SSM 규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정부의 부정적 의사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민주당 자유무역협정 특위 간담회에 참석,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사업조정 지침도 SSM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규제할 수 있어 처음부터 가맹 방식으로 SSM을 개점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사위가 취소되면서 1년 넘게 끌어온 입법이 또다시 표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영세상인 보호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입법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여당은 SSM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외쳐온 '공정사회'의 진정성을 의심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을 시급히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無等鼓

머신(F1 경주용 자동차), 서킷(경기장), 포뮬러(머신 운전석), 피트(머신 정비소), 패독(VIP 라운지), 리타이어(경기포기)...

지난 24일 영암 서킷에서 막을 내린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전후해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용어들이 다. F1 마니아이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생소했던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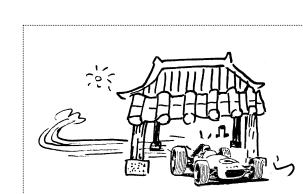
우리 고장 영암에서 대회가 열리는 동안 분위기는 사뭇 이국적이었다. 페라리, 맥라렌, 레드불 등 주로 외신이 등장하는 F1팀이 등장하는가 하면, 수많은 외국인이 오고가 "과연 이곳이 전남이 맞느냐?"라는 말도 나왔다.

각 팀의 응원 티셔츠와 모자도 날개 돌린 듯 팔려나갔고 대회 내내 글로벌 기업의 광고판과 알록달록한 깃발이 휘날려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했다. F1이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의 취향에만 맞추는 것은 또 다른 '사대(事大)'일 수 있다. /박치영 사회부장 unipark@

문득문득 다른 나라 F1경주장 같은 생각이 들게 했던 영암 서킷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친숙하게 눈길을 당기는 곳도 있었다. 바로 한옥 형태의 경주장 메인게이트였다. 서킷의 얼굴이자, 상징인 메인게이트를 한옥으로형상화함으로써 한국 남부지역의 특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의도였을 것이다. 특이한 모양의 영암 F1대회 우승 트로피도 시선을 모았다.

대회 우승자 페르난도 알론소는 시상대에서 세계적인 도자기로 인정받은 강진 고려청자의 멋을 최대한 살려 제작된 트로피를 김형식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고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한옥 모양의 메인게이트와 고려청자를 본뜬 트로피를 두고 네티즌들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일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대회에 상징물들이 너무 촌스럽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제이벤트인 만큼 이 모습들은 너무나 당연스러웠다.

한옥, 청자



기고

지형원



케이블 TV 사상 최초로 시청률 10%대 시대를 열었던 Mnet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가 막을 내렸다. 1%만 기록해도 대박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어느 날 14.7%까지 기록했으니 'K2'는 위대했다. 'K2'는 가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오디션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K1' 대회에는 72만 명이 참여했고 이번 'K2'에는 무려 두 배에 가까운 134만 명이 뛰어들었다. 열기가 가히 폭발적이다.

먼저 지역방송국에서 예산을 차르고 본선에 올라오면 경쟁한 심사위원들의 점수와 네티즌들의 투표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많은 화

를 이어갔다. 그래서 한국의 '폴 포츠'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63cm의 작은 키에 외모도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다. 이른바 이 시대를 헤쳐갈 '스펙'이 전혀 없다. 오직 그의 재능을 알아본 '동네 형'이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도록 해준 것이 유일한 후원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힘든 이 시대에 허 각의 우승은 "인간승리"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 것이다. 특히 그가 결승에서 맞붙은 준박은 잘생긴 외모에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다. 그러나 노래에서만은 최고였다. 심사위원들은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아버지와 함께 라면을

제와 유행어를 불러일으켰다. 공중과 방송들이 비슷한 형태의 오디션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러나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우승을 차지한 허각의 말이다. 그는 우승한 뒤 가진 첫 인터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싶느냐는 물음에 "아버지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갖게 해준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목소리를 갖게 해준 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가 세살 때 쌍둥이 형제를 두고 집을 나가버려 고아처럼 살았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들을 돌봐줄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낮에는 환풍기를 고치고 밤에는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

를 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폴 포츠'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63cm의 작은 키에 외모도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다. 이른바 이 시대를 헤쳐갈 '스펙'이 전혀 없다. 오직 그의 재능을 알아본 '동네 형'이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도록 해준 것이 유일한 후원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힘든 이 시대에 허 각의 우승은 "인간승리"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 것이다. 특히 그가 결승에서 맞붙은 준박은 잘생긴 외모에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다. 그러나 노래에서만은 최고였다. 심사위원들은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기부 행위는 기업 자긍심이자 존립 가치... 생활화 해야

기부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연말이 다가온다. 최근 미국의 워런 버핏 회장이 천문학적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재벌기업의 비자금문제 등 매일같이 도덕적 타락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움마저 생긴다. 미국에서 부자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다. 황금만능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 확실한 세금을 내고, 세금이 많으면 그 돈은 사회에 기부해

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굳이 록펠러나 카네기, 빌 게이츠 등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사회적 기부는 생활화 돼있다. 미국에서 기부는 가진자의 자선행위를 넘어 기업의 자긍심이자 존립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평생 모은 천문학적 재산을 통째로 내놓는 그 결단을 내리는 힘이 미국을 오늘날 세계 초일류 강대국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종섭·광주시 광산구 정덕동

NGO 칼럼

박병재



수어교(水魚之交)! 사람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셔야한다. 유별나게 내 주변의 광주 시민은 무등산을 사랑한다. 무등산이 광주의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무등산이 내뿜는 깨끗한 공기를 흠뻑 호흡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등산 품에 입산(入山)을 한다. 입산을 하면 경건한 자세로 흠과 바위를 밟고 무조건 산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무분별한 발걸음 무등산의 생태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서석대에서 광주의 하늘을 바라보면 온통 뿌연다. 큰일이다. 그러다가 페트병에 담은 물을 사 먹듯이 공기마저 사먹는

버금가는 아름다워 편백나무와 삼나무 군락지가 있다. 증심사 무등산 관리사무소 뒤쪽에 있는 제 1수원지 계곡이다. 1시간 정도 산림욕을 즐기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기분이 박하사탕처럼 상쾌해진다. 또, 제 1수원지의 물이 사철 나무인 편백, 삼나무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함과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 속에 앉아있는 듯하다. 어쩐 그곳이 축령산만큼 무등산에서 가장 잘 조립된 곳이다. 그래서 숲이 주는 이로운, 산림·생태계를 교육하기 위한 '숲 체험 학습의 장'으로 안성맞춤이다. 각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신년 초에 체험 학습의 장으로 교육과정에 넣어 무등산을 '큰 바위 얼굴'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길렀

무등산 숲 이야기

날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도 생태계 변화로 박새, 멧돼지, 고라니, 노루, 오소리, 산토끼는 더는 보이지도 않는다. 무등산은 원래 울창한 숲인 성림지(成林地)였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남벌하고, 해방 후 땃감을 하기 위해 벌채를 하여 고목(古木)의 성림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지금은 관민(官民)의 꾸준한 노력으로 숲이 잘 조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고유수종인 들기시나무, 패죽나무, 대나무, 낙동구절초 등과 무등산에 자생하고 있는 활엽수 계통의 나무를 심어서 무등산 숲의 품격을 높이고 무등산 미관(美觀)을 더 건강하게 하려면 한다. 숲이 주는 보건효과는 누구나 다 안다. 숲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리듬과 감각을 길러주고 정신적 안정을 회복시켜준다. 한국의 조림왕이며 한국 조림의 효시인 '임종국' 어른은 장성군 축령산의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 군락지를 조성했다. 한 사람의 집념으로 푸른 산을 만들고 그곳이 사람들이 찾아와 산림욕(山林浴)을 즐기는 장소로 유명해 졌다. 그보다는 작지만 무등산 자락에도 그에

오면 좋겠다. 아울러 광주시·화순군·담양군이 서로 머리를 모아 무등산 국립공원 만들기 와 숲 보존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무등산 전시기'를 지어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아우르며 관광명품 광주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사업이요 의무가 아닐까 한다. 끝으로 무등산(박선홍 지음) 8쪽을 읽어보면 "무등산은 함으로 예사스런 산이 아니다. 어디서 보나 중후하고 후덕한 품모와 지축으로부터 솟을 듯한 절묘한 암석미, 그리고 골짜기와 기슭마다 옛 문화와 국난을 헤쳐 간 구국열사들의 장렬한 흔적이 배어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조 분청사기 주산지로서 또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문화와 역사의 보고이자 우리 마음의 고향이며 영원한 모성(母性)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광주 사람은 무등산의 고마움과 가치를 깊이 새기고 무등산에 잘 조성되어 있는 숲들만은 더욱더 보호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무등산자연 청소년환경학교 교감>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012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